■ '키스 해링전' 첫 주말

한작품도 그냥 지나칠수 없네

12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팝아트의 거장 키스 해링의 대표작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이부터 어른까지 1천여명 찾아… 오디오 가이드·아트상품 등 인기

"눈길을 사로잡는 화사한 색감에 겨울 추위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올 겨울 광주는 키스 해링으로 행복했다. '키스 해링전'(2011년 2월 27일까지)의 개막(지난 8일) 이후 첫 주말·휴일이었던 11~12일 지역 관람객 1000여명이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을 찾아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와 화려한 색감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다.

또 인종차별반대, 반핵, 동성애자 인권옹호, 에이즈퇴치, 어린이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담아냈던 키스 해링의 작가 정신을 느끼기에도 충분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와'하며 소리를 지를 것 처럼 신기한 표정으로 작품을 지켜봤다.

관람객들은 미술관 앞 잔디밭에 설치된 키스 해링 작품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 앞에서 단란하게 가족사진을 찍으면서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

또 제1~3전시실(1층), 제4~6전시실(2층) 등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설치된 '남아프리카에 자유를' '빛나는 아이' '회상' '침묵=죽음' '아이콘' '팝숍' 등 그의 대표작 150여 점을 차분하게 감상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부 양영애(34·광주 북구 양산동)씨는 "그림이 어렵지 않아 아이들이 좋아하고, 작품 안에 담긴 의미가 맘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제3전시실에 설치된 키스 해링의 일상과 작업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Drawing the Line'(30분)을 함께 관람하며, 팝 아트를 이해하는 소중한 교육의 시간도 가졌다.

뉴욕 지하철을 연상케 하는 노란색 철 구조물 전시장에 설치하고, 키스 해링의 생전 작업 모습과 개인적인 사진 등을 대표작과 함께 선보인 전시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국민 남동생' 유승호의 음성이 담긴 오디오가이드(3000원)는 여성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았다.

오디오가이드 안에는 세련된 컬러와 역동적인 이미지의 조화를 이루는 키스 해링의 작품 세계와 특징 등이 잘 녹음 돼 있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키스 해링 작품은 운동화, 시계, 휴대폰 등 유명 브랜드의 이미지로도 사용돼 더욱 유명한데 이번 전시에서도 그의 이미지가 담긴 가방 등 다양한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아트숍이 마련돼 인기를 끌었다. 문의 062-613-53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가지 악기가 들려주는 프랑스음악

15일 최지혜·주민혁·임리라 연주회

플루트·클라리넷·피아노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낸다. 연주 레퍼토리는 드뷔시, 라벨 등 프랑스 음악가들의 곡이다.

최지혜(플루트), 주민혁(클라리넷), 임리라(피아노)씨가 '프랑스 음악'을 주제로 연주회를 마련했다. 15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드뷔시의 '작은 모음곡',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 카젤라의 '시릴리안느', 폴랑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슈미트의 '트리오를 위한 소나티네' 등으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현대음악들도 만날 수 있다.

광주예고와 이화여대를 거쳐 인디애나 주립대 석사 및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최씨는 현재 목포대 등에 출강중이며 광주예고·경희대 음대 출신으로 프랑스 Ecole National de Musique de Meudon에서 수학한 주씨는 광주시향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지혜〉

〈주민혁〉

〈임리라〉

임씨는 광주예고와 연세대, 노스텍사스 음악대학 석사·박사 과정을 수석졸업했으며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일을 여는 작가' 한국작가회의 속간

한국작가회의(이사장 구중서)는 정간했던 기관지 '내일을 여는 작가'를 속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작가회의는 지난 2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데 반발해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올해 봄호(통권 58호)부터 기관지 발행을 중단해왔다.

작가회의는 "이번 속간은 문학평론가 김병익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후원금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항의 목소리를 이어가면서 부정기간행물 형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호남화단의 대부' 남농 허건 평전 출간

'호남화단의 대부'로 일컬어지는 남농 허건(南農 許楗·1908~1987년)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평전 '남농:남농 허건 예도 65년'이 최근 출간됐다.

남농은 추사 김정희에게서 "압록강 동쪽에 이만한 작품은 없다"는 극찬을 들은 화가 소치 허련(小癡 許鍊·1862~1938년)의 손자로 진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목포에서 살며 향토색 넘치는 남종화 화풍을 이룬 인물이다.

성균관대에서 예술철학을 전공한 김상엽(문화재청 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씨가 집필하고 남농미술문화재단(이사장 허경)이 펴낸 평전은 정확한 고증에 의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오류를 수정하고 후손과 지인들의 생생한 회고를 통해 남농의 예술가로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살려낸 최초의 평전이다.

총 4장으로 구성된 평전에서 김씨는 남종화에 대한 개념정리에서부터 추사-소치-미산-남농으로 이어지는 호남화단의 흐름을 정리하고 남농의 입문과 선전 입선, 신병과 고난, 새로운 남화의 창조, 그리고 남농기념관 건립과 운림산방 복원 과정까지 상세하게 다뤘다.

또한 제자들에게 "네 그림을 그려라"고 강조했던 선생의 혜안과 근검정신, 낯선 노파에게도 그림을 선물했던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면모도 담았다. 부록으로 새겨볼 만한 남농어록, 연보, 무안 삼향면에 있는 묘소와 묘비명 등을 수록했다. 문의 061-276-031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4일 BPW 광주클럽 40주년 기념행사

(사)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Korea federation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광주클럽(회장 김혜경) 40주년 기념행사가 14일 오후 5시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광주클럽 40년사 회고, 장학금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이병훈(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문화도시는 감성의 토양 위에 세워진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지난 1979년 창립한 광주클럽은 '도·농차세대 여성문화 CEO 만들기, 여성의 눈 세상 바로보기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다. 기념행사 후에는 축하공연도 열린다

한편 BPW 광주클럽은 무등클럽과 공동으로 13일 오후 7시 옛 전남도청 앞에 세워진 쿤스트 할레 광주에서 '2010 희망 나눔 콘서트'도 개최한다. 문의 062-717-7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단편소설·시·동화…12월15일 마감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 2010년 12월15일(15일자 소인 유효)
■ 보내실곳 :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 062-220-0680)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원고 접수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주소·e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 응모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복투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 당선작은 2011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평겨운 연인과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1관	쩨쩨한 로맨스(18세)	1관	쩨쩨한 로맨스(18세)
2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더콘서트(전체)	2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부당거래(18세)
3관	이층의 악당(15세)/김종욱 찾기(12세)	3관	이층의 악당(15세)/김종욱 찾기(12세)
4관	김종욱 찾기(12세)	4관	김종욱 찾기(12세)
5관	부당거래(18세)	5관	워리어스웨이(15세)
6관	나니아연대기:새벽줄정호의 항해(전체)	6관	나니아연대기:새벽줄정호의 항해(전체)
7관	스카이 라인(12세)	7관	투어리스트(15세)/스카이 라인(12세)
8관	스위치(15세)/베리드(15세)	8관	스위치(15세)/베리드(15세)
9관	나니아연대기:새벽줄정호의 항해(전체)	9관	나니아연대기:새벽줄정호의 항해(전체)
10관	워리어스웨이(15세)	10관	투어리스트(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투어리스트(15세)	최고급관
2관	쩨쩨한 로맨스(18세)	
3관	투어리스트(15세)	
4관	김종욱 찾기(12세)/나니아연대기(전체)	
5관	나니아연대기:새벽줄정호의 항해(전체)	
6관	라스트 엑소시즘(15세)/광주국제영화제	
7관	이층의 악당(15세)/광주국제영화제	
8관	김종욱 찾기(12세)/워리어스웨이(15세)	
9관	김종욱 찾기(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1관	워리어스웨이(15세)
2관	투어리스트(15세
3관	김종욱 찾기(12세)
4관	스위치(15세)/라스트 엑소시즘(15세)
5관	워리어스웨이(15세)
6관	쩨쩨한 로맨스(18세)
7관	나니아연대기:새벽줄정호의 항해(전체)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